

광주시 '맑은 공기 도시' 조성 조례 추진

'공기 산업 클러스터' 육성·지원안 시의회에 제출 비전 선포식 갖고 전남대·광주과기원 등과 협약

광주시를 '맑은 공기 도시'로 조성하고, '공기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근거인 조례안이 제정된다.

광주시는 6일 "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부의(附議·도의에 부합)안건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맑은 공기 도시'를 조성하고 공기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광주시 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공기산업의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기산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 공기산업 육성을 통해 이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관련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앞서 '맑은 공기 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조선대,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국제기후환경센터, 한국공기안전원, 광주산학협

의회 등과 공기산업분야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공기산업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관리,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전반적인 공기의 악취·측정·관리하는 사업이며 이와 관련 부품·소재·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는 또 ▲재난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광주시경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건의 개정조례안을 부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재난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군·구청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를 추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한편 이들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27일 이들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업체 13일 결정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시스템을 맡게 될 업체가 오는 13일 결정될 예정이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6일 "지난 8월 24일 조달청을 통해 재공고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 일괄 제작구매' 입찰에 고무차량 제작사 1개 업체와 철제차량 제작사인 1개 업체 등 2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조달청은 참여업체들의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통해 최고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사업 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경영상태, 신인도 등 정량평가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사후관리 등 정성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해 9월 13일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낙찰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인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구체적인 기술협상이 완료되면 10월중 조달청과 낙찰업체간 최종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차량제작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된 차량형식 선정문제가 평가와 결정만 남게 되면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계획대로 순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수영대회 홍보대사 박태환·안세현 임명
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 선수권 대회 홍보대사 임명식에서 홍보대사로 선정된 한국수영의 강판 박태환(왼쪽)과 안세현이 대회 마스코트인 달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교통약자이동센터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市 감사위... 계약해지 대상 운전원 무기계약직, 차량정비 비용 과다 등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전원을 부당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위법·부당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6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10건을 적발,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와 3명에게 경고하는 등 신분상 조치했다.

이동센터는 미터기 조작으로 정적처분을 받아 계약해지 대상인 운전원 4명을 부당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차 사고를 내 성과급 차감대상인 운전원 8명에게 169만원을 지급했다가 회수조치 당했다.

2014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51명(88

건)의 각종 법규를 위반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성과급 49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 보조비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원장에게는 100만~110만원, 사무처장 35만~60만원 등 직급에 따라 보조금을 줬다가 감사가 적발됐다.

센터는 또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이른바 대형 교통사고만 징계하고 그 외의 차 사고 유발 직원에 대한 징계는 않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나 감사위는 관련 규정 마련을 통보했다. 2014년부터 3년간 사고건수와 처리비용은 186건에 1억8200만원에 달했다.

과도한 정비와 주먹구구식 정비업체 선정 등도 지적됐다. 2014년부터 3년간 차량정비와 소모품 교체 등에 들어간 비용은 8억5000만원으로 대당 평균 336만원에 달했다. 감사결과 엔진오일, 타이어 등 상당수 차량에서 소모품 교체가 적정 교환시기보다 앞당겨 교체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윤장현시장, 국비 확보 위해 정치권과 소통

국회 찾아 지역 의원들과 면담 민주당과 15일 예산정책협의

이었던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간 예산·정책협의회를 오는 15일로 다시 잡았다.

이 자리에서 백 위원장은 "당 내부 사정으로 협의회 일정을 갑작스럽게 연기해서 아쉬움이 컸다"며 "15일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함께 광주에 가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국민의 뜻을 모아 확정된 100대 국정과제를 완결하는 일이 곧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가는 일이다"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윤장현 시장이 정치권과의 소통에 나섰다. 또 잡정 연기됐던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의 예산·정책협의회 일정도 오는 15일로 확정됐다.

윤 시장은 지난 5~6일 국회를 찾아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 여야 중진의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등 17명의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하고 내년도 광주시의 정부예산 추가 확보를 요청했다.

윤 시장은 6일 국회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바른정당 홍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만났다. 백 위원장은 윤 시장과의 면담에서 지난 4일 열릴 예정

과거 직무계획서 짜집기 제출·음주운전 은폐 의혹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김윤기 청문회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김윤기 전 아트광주 사무국 운영감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직무수행계획서 짜집기 제출과 음주 운전 등이 지적됐다.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윤집(민주당·비례) 의원은 3년 전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공모 당시 김 후보자가 제출했던 직무수행계획서와 이번 청문회에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 내용이 같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두 가지 직무수행 계획서의 목차나 큰 틀이 거의 같고 일부 문장은 아예 똑같다"며 "문화재단 대표를 맡기 위해 3년간 준비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또 "김 후보자는 문화단체를 조직했거나 CEO 경험이 아예 없다"면서 "학력이나 경력, 자격증을 모두 살펴봐도 문화 분야 전문가가 지나야 할 능력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문화재단 대

표이사과 사무처장의 직무 범위가 중첩되는 범위가 넓다"며 "직무수행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을 강조한 점도 서로 비슷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음주운전을 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범죄경력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음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다가 추후 수정제출한 자료에는 포함된 것을 두고 일부 의원이 "음주운전 사실을 고의로 감추려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0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1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한 뒤 13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며, 이후 윤장현 시장이 정식 임명하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트라우마센터,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로 격상

광주트라우마센터가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로 격상돼 운영된다.

광주시는 6일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의 내년 상반기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를 위해 2018년 국비 4억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국화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트라우마센터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로 운영돼오다 2016년부터는 광주시 예산만으로 운영됐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에서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격상을 공약으로 요구했고 최근 정부는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의 주관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위치는 광주시에서 제안한 옛 국군광주병원(서구 화정동) 부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행안부와 광주시 관계자 등이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를 공동으로 현장답사 하는 등 사업추진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Mega outlet

남구청내

LIFE STYLE FASHION OUTLET

LifeStyle Fashion Outlet
Mega outlet에서 함께 할 식당가 운영점주님을 모집합니다

광주의 중심 백운광장 남구청사에 닥스, 나이키, 데벤투, 노스페이스, 지미코 등 국내외 최정상급 브랜드 70여 브랜드가 입점하는 Mega outlet 광주점이 9월말 오픈합니다. B1F 핫트렌드의 최신프랜차이즈 푸드존에서 함께하실 점주님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지하 1층 프랜차이즈 식당가 4개점 경영점주
대상브랜드	멘투사(일분라면), 두끼(분식뷔페) 복순순만두(만두/빙면), 스테이크보스(캐주얼스테이크)
운영조건	브랜드별 상이 (입점문의 010·9545·1318 이성훈이사)






층별 안내	<p>B1F Food kids</p> <p>1F Sports Casual Shoes</p> <p>2F Outdoor Woman's wear</p> <p>3F Men's wear</p>	
-------	--	---